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3년
2024년 7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8년 제 296 호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종령 유시문

방생은 상생 위한 부처님 자비행



종령 지성 대종사

방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생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 지구 생명체의 삶을 해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내면의 분노와 탐욕,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방생은 이러한 자각 즉, 연기적 세계관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나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우주 만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와 한 몸인 모든 존재에 대한 존귀함과 불해(不害)를 말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불살생과 자비의 구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체대비(同體大悲)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방생(放生)은 곧 공생(共生)이며 상생(相生)으로 이어지게 하는 부처님의 커다란 자비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9일 동안 호국일념으로 나라를 위한 불공과 조상들의 영령을 추복하고, 유언·무연중생의 영식전도를 위한 용맹정진의 결실이 오늘 여러분들의 공덕으로 원만히 회향되었습니다. 회향일에 이르는 동안 묵묵히 불공에 전념해주시고 염주와 진언을 놓지 않으신 모든 보살님들과 각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우리 종단의 하반기 진호국가불공은 나라를 위한 불공이면서 또한 선망부모와 조상의 영식을 극락세계로 천도하는 불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망부모와 조상영식의 극락왕생 서원 공덕과 성취는 바로 산 목숨을 살려주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매년 종단에서는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하면서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를 통해 방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생명을 볼 수 있다면 진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은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으면 곧 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된 이것이 자기방생, 인간

절망하는 가슴에 희망을 싣트게 해주고, 세상은 살만한 것이라고 일깨워 주고, 더불어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방생이고 이것이 바로 공생과 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방생이라는 자기 방생을 통하여 아집과 아상, 편견과 사된 욕심을 버림으로써 스스로를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법회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해탈을 위한 법회이기도 합니다

진호국가불공 회향을 위한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 동참한 분들의 정진원력에 감사를 드리며,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일체 소원이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2024년 한국밀교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원정 대성사 주제 논문 첫 발표, 학술지 등재 예정



총조 원정 대성사를 주제로 하는 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한국밀교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밀교'라는 대주제로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 정각사에서 개최됐다.

'세계 분단·대립 극복 위해 노력하자' 공동선언문 발표

제41회 한일불교교류 대회, 日증상사 평화기원법요·학술대회 등



한국과 일본 양국 불교계의 우호를 다지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제41회 한일불교교류 대회'가 지난달 26일, 27일 양일 간에 걸쳐 일본 도쿄 증상사(増上寺·조조지)에서 개최됐다. 종단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트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총무부장 목경, 수현, 법우, 서경, 서강, 법상, 해광, 도관 정사 9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해 총지종 선양과 양국 교류 증진에 앞장섰다.

이번 대회는 26일 오후 일본 도쿄 프린스호텔 메그놀리아 홀에서 양국 불교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한일불교문화교류 증상사대회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27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 증상사 본당에서 본 행사인 세계평화기원법요식을 봉행했다.

2면으로 이어짐

종/조/법/어

대중을 이롭게 하면 자기도 이로우며 완전한 장원한 이익이고 화평과 은애로 살고 금세와 내생에 복락이 무궁하다.

지 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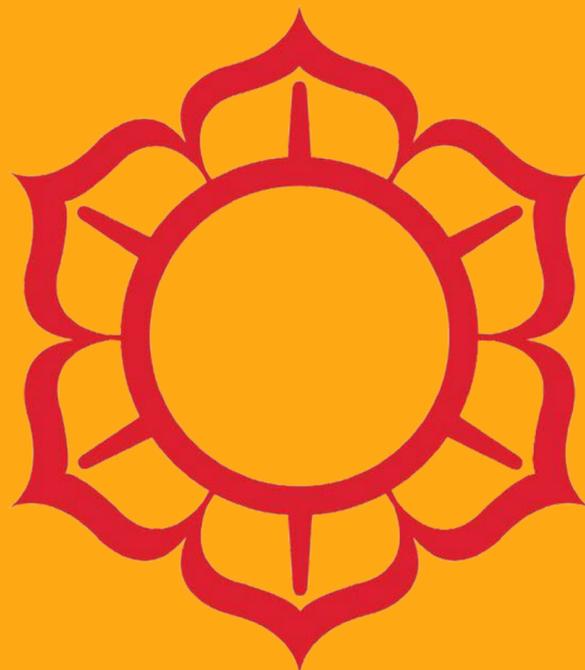
- 8면 원정대성사 밀교사관 계승과 과제
- 9면 글로 보는 불교의 8대 성지
- 10면 총지로 여는 삶①

총기 53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_ 총기 53년 7월 16일(수) 오후 1시

장소 _ 경상북도 문경실내체육관



100여명 참석 사부대중, 환희와 법열로 가득

한국밀교학회 학회장 효명 정사, '가장 훌륭한 대회로 평가'



“원정 대성사는 생전 당시 연구 자원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불교사 전체를 관통하는 해안을 지니고 인도와 동아시아, 한국불교에 대해 현미를 넘나드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인류의 스승으로 펼쳐려 했던 꿈과 원력들은 향후 후손들이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를 주제로하는 정성준 박사(전 티벳대장경역역원 연구원)의 논문이 국내 처음으로 발표되어 한국밀교 양대 종단의 스승들과 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다. ‘원정대성사 밀교사관의 계승과 과제’라는 주제의 논문은 또 이날 발표로 그 가치와 학술적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밀교학회 학회지에 등재되기로 결정됐다.

2024년 한국밀교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밀교’라는 주제로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 정각사에서 열렸다. 개식불공으로 시작된 이날 학술대회는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한국밀교 학회장 효명 정사를 비롯한 한국밀교학회 임원진과 학자, 교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축사를 통해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사상이 조명되고, 밀교 사관이 연구·발표되는 법적으로 펼쳐진다고 생각하니 환희와 법열이 더욱 차오른다.”고 소회를 밝히며, ‘부처를 알고

자고, 부처와 같이 일어난다.’는 원정 대성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학술대회를 시점으로 한국밀교학회가 향상일로의 디딤돌이 되어 무상정등각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정각사 주교 법일 정사는 “한국밀교학회 학술대회가 정각사에서 개최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대회 시간 동안 불편함 없이 뜻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가시길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서원한다.”고 환영사를 마쳤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한국밀교의 양대 종단이 원래는 한 뿌리에서 자라났다.”고 전제하고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비롯해 종단 간의 교류를 통해 양 종단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의 첫 순서로 전 티벳대장경역역원 연구원 정성준 박사의 ‘원정 대성사 밀교사관의 계승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 박사는 “대성사의 행장과 어록은 인도불교에서 시작된 밀교의 연원과 동아시아와 한반도 밀교문화의 특수성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점차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분열과 통합을 통해 전체성으로 나아가 하 나로 묶는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또 “훗날 진각종이 전통교단과 총지종으로 분열되지 않고 원형만을

유지했다면 경직된 소수종단이 되었을지 모르고 변화만 지지했다면 수많은 밀교 전적과 의례의 흥수에 중심을 잃었을지 모를 일”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양 종단 모두 회당 대성사와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구심점으로 학교 설립과 각종 사회복지지원 건립, 인재양성과 연구사업 등 불교종단의 현대화 사업에 매진해온 것으로 향후 공존의 협력과 각 종단이 지닌 특수성의 개발이라는 과제를 후대에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김치은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김경집 초빙교수의 논평이 진행됐다.

제2주제는 엄기표 단국대 교수가 ‘한국밀교의 전개에 따른 육자진언 문물의 현황과 특징’, 3주제는 방정란 경상대 연구교수가 ‘인도후기밀교에서 기술하는 밀교의 위상과 의의’, 제4주제는 옥나영 흥익대 강의교수가 ‘불정존승다라니에 관하여’, 제5주제는 한성자 국사편찬위원회 번역위원이 ‘실록을 통해본 조선시대 불교의 밀교적 경향’을 각각 발표했다. 논평은 김경집 동국대 초빙교수, 손신영 문화재청 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 강향숙 동국대 연구교수, 최성규 위덕대 연구교수,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밀교학회 학회장 효명 정사는 폐회사에서 “오늘 부산 정각사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총지종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열띤 참여와 지원으로 가장 훌륭한 대회로 기억될 것이다.”고 평가하며, “자성을 찾아 즉신성불 한다는 밀교의 가르침을 통하여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방화편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학술대회를 지켜봐 달라.”고 인사했다.

한국밀교학회 학술대회는 그동안 밀교학·불교학 분야에 대표 석학들이 발표자와 사회자, 논평자로 참석해 한국 정통 밀교학을 발전시키는 대회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번 대회는 종단 역사의 의미 깊은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각사=박재원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일본측 스님들의 불교의식에 이어 양국 불교대표단은 전쟁 희생자와 자연재해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헌화했다.

오후에는 증상사 1층 대강당에서 ‘격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교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학술강연회가 진행됐다. 학술강연회에서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양국을 대표한 모두 발언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학술강연회는 두 나라 불교 교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교도들이 가야 할 깨달음의 길이요, 평화로운 인류 구현의 길이기도 하다.”며, “오늘 학술강연회가 바람직한 세계질서를 놓을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인사했다.

사토 유키오 정토종 토모이키(공생)재단 이사장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불교의 가능성-절에서 태어나고 자리면서 지금 생각하는 것’,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불교의 가능성’

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학술대회를 마지막으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명안 스님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사토 류이치 스님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 불교대표단은 공동선언문에서 “정치·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그 영향으로 동아시아에서도 분단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이 설하신 자비 정신의 중요성을 세계에 제시하고, 어떠한 민족·인종, 나아가 국내외의 분단과 대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한일 양국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질과 개인주의의 팽배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평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 “양국 불교계는 부처님의 자비자에 정신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개인의 마음에 평화를 위한 선명상 보급에 노력한다.”고 공표했다.

도교 증상사=박재원 기자



평화기원법요식 봉행 후 양국 불교대표단은 증상사 본당 앞마당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종단 대표단이 환영 만찬장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마음청정 지구청정

Pure Mind. Pure Earth

『기후 환경 위기 극복 불자행동 캠페인』 “생활속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비움

Simple Life

소욕지족 少欲知足 운동

물질을 소박하게 마음은 풍요롭게

- 적게 소유하며 검소한 삶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누리겠습니다. 적게 구입하고, 오래쓰며, 윤리적 소비로 살기
- 자연과 이웃 덕분에 살아남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연과 이웃의 은혜 알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베풀며 살기
- 본래 내 것은 없음을 알고, 나누고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무소유와 나눔, 자비의 마음으로 돌봄과 배려의 삶을 살기
- 위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협동하며 공동체로 살기

바꿈

Changing Life

수취작주 水取作主 운동

나를 바꿈 세상을 바꾼다

-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화를 다스리며 수행과 평화명상 생활화하기
- 쓰레기 제로의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우공양, 일회용품 사용금지, 비닐 플라스틱 사용절제, 농어촌 쓰레기줍기
-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자동차사용하기
- 채식위주의 식사와 발우공양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장려하며 소식은 빈그릇운동 실천하기

살림

Saving Life

생명방생 生命放生 운동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 동물을 보호하고 살리며,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대적 방식실천, 살처분반대, 동물권옹호, 미래세대권리 옹호하기
-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며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만림 나무심기, 산림제도 부활, 사찰숲가꾸기
- 농업을 지키고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지원지원, 텃밭가꾸기, 귀농귀촌지원, 농촌공동체만들기
- 개발보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금지, 자연서식지 습지 보호, 생태파괴기업 투자철회

미래

For the Future

자업자득 自業自得 운동

미래세대에겐 피해 물려주지 않기

- 환경과 생태문제를 배우고 이웃과 더불어 실천합니다. 종단, 교구별 환경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실시, 조직민들고 실천하기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사찰과 불교시설 태양광 풍력등 재생가능에너지이용, 넷제로(Net-Zero)실천
-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역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순환사회만들기, 전지구적인 문제해결에 참여
- 가난한 아들과 난민,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난민지원, 공정무역,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불교총지종 대한불교대각종 사)대한불교원흥종 대한불교보문종 재)대한불교원효종
 대한불교총화종 한국불교여래종 대한불교화엄종 재)대한불교영선종 대한불교삼존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용화종 한국불교미륵종 사)대승불교보문종 보국불교검불종
 사)대한불교조동종 사)대한불교법상종 재)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법연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대승불교법이종

‘불공의 공덕으로 왕생성불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상지화 지수 열반 1주기, 효강 대종사 열반 2주기 추선 불사 봉행



불교총지종의 큰 스승으로서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밀교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효강 대종사의 열반 2주기 추선불사가 지난달 29일 본산 총지사(주교: 특경 정사)에서 봉행됐다. 이에 앞서 종단과 교화발전회 한평생 정진해온 기로스승 상지화 지수의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지난달 17일 같은 장소인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되었다.

두 스승의 추선 불사에는 종령 지성 대종사를 비롯해 전국 스승들과 교도들이 참석해 추선의

마음을 모았으며,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은 음성공양을 올려 참석자들의 애달픈 마음에 눈시울을 적셔주었다.

가족 대표들은 추선사를 통해 “기일을 맞이하여 총지사 서원당에서 법식으로 불공 올리오니 이 불공 공덕으로 왕생성불 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며 부모 인연으로 만나 한평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상지화 지수는 1976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을 수료하고 승직에 올랐으며, 평소 형편이

어려운 스승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남모르게 학자금을 지원할 만큼 자비와 선행에 모범을 보이셨다. 1994년 기로진원에 든 후, 지난해 6월 17일 세수 98세 법납 47세로 입적했다.

효강 대종사는 불교총지종 제9대부터 11대 종령과 5대와 9대 통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불교방송이사, 불교텔레비전 개국 이사종단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한국밀교와 한국불교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2022년 7월 1일 세수 96세, 법납 33세로 원적에 들었다.

진각종 제14대 총인 덕일 정사 추대



진각종 제14대 총인에 덕일(德一) 정사가 추대됐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서울 총인원에서 제14대 총인추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덕일 정사를 총인으로 추대했다.

이날 경정 총인 등 인의회 의원들과 통리원장 도진 정사,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 현정원장 능원 정사, 교육원장 효명 정사로 구성된 총인추대회의를 열고 덕일 정사를 5년 임기의 총인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8월 1일부터이며, 법통승수식을 거행한 후 직무에 임하게 된다.

진각종 제14대 총인으로 추대된 덕일 정사는 진기 24(1970)년 종비장학생으로 종단에 입문해 진기 40(1986)년 최정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상석·원선·대원·보원심인당 주교와 흥교부 문화국장, 심인고등학교 정교, 교육원 교법국장, 유지재단 이사, 제9, 13, 14, 15대 종의회 의원, 제14대 종의회 의장, 위덕대 불교대학원장, 위덕대 정교실장, 진선여자중학교 교장,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진기 73(2019)년 4월 종사에 품수했으며, 현재 서울 무애심인당 주교와 인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 간사 선운 정사(예경실장)는 “진각종의 법통과 교법의 신성을 상징하고 심인법통을 승수하는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 총인 예하의 추대법회는 추후 일정에 따라 봉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과학과 불교

지혜의 눈

불교유식사상, 뇌과학 발전으로 입증 허블 망원경으로 불교의 수개념 확인

에서 가져와 완성시켜 인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일부로 전체를 추론하는 과정이라 늘 맞지는 않지만 위험에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불교의 유식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계소집성입니다. 이를 본래 없는 것을 범부의 망상으로 추측을 통하여 있다고 집착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정확히 과학에서 말하는 인식작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없고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 의해 만물이 존재한다는 현대 과학의 주장과 같은 것이 의타기성입니다. 다른 사물에 의지해 존재한다는 말은 연기의 또다른 표현인데 한 사물이 성립하는데 인(因)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연(緣)은 간접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물이 존재하는데 우주 전체가 관여한다는 것

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유식에서는 이를 인연, 증상연(增上緣), 소연연(所緣緣), 등무간연(等無間緣)으로 세분해서 설명합니다. 이 의타기성은 만물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면 동시에 만물이 무자성(無自性)임을 밝혀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동일한 사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각자의 변계소집성에 의해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는데, 그 각자의 편견, 변계소집성을 비량(比量), 즉 비교해서 안다고 합니다. 그 편견이 없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현량(現量)이라고 합니다. 즉 변계소집하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1990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우주에 쏘아 올려져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인식을 혁명적으로

바꿔놨습니다. 불교에서 다루는 수의 단위로 항하사(恒河沙), 무량겁. 불가사의(不可思議)와 같은 말들이 과장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의 은하에는 수천억개의 별, 즉 항성(恒星)이 있고 그러한 은하가 우주 전체에 수천억개가 있으며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나 양자 역학과 같은 물리학 이론이 얼마전까지 해당 과학자나 소수의 호사자들에게나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대중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것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불교신자라고 인식하지 않아도 불교적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나이든 기성세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세상이 온통 불교의 교리를 홍보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칼럼니스트 김태원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은색)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진언 염송, 번뇌망상 다스리는 지름길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절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8. 다라니(陀羅尼) 지송공덕(持誦功德)

○ 진언(眞言)

진언(眞言)에는 오부(五部)가 있다. 불부주(佛部呪), 연화부주(蓮華部呪), 금강부주(金剛部呪-금강신金剛身), 보부주(寶部呪-제천諸天), 갈마부주(羯磨部呪-제신주諸神呪).

오부진언(五部眞言) 오부단법(五部壇法) 각각(各各) 다섯이 있으므로 모두 이십오부(二十五部)나. 각각 그 인(印)이 있다.

○ 공덕(功德)

1) 불보살의 진실한말 무형한 법계의 진리를 총집약한 것이 진언이다. 그러므로 정신환자가 그 뜻을 모르고 염송해도 공덕은 그대로 난다.

2) 염송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것과 싫어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3) 회사를 곁하면 공덕은 더 바르다.

4) 현실 물질에도 정수(精髓)라는 것이 있듯이 법계의 진리에도 불보살의 본심과 본서(本誓)에도 그 정수가 있는 것이 유형무형의 상대원리일 것이다.

註 - 진언(眞言), 다라니(陀羅尼), 주(呪)에 대한 소고(小考)

기원(起源)을 소급하여 보면 고대인도(古代印度)에서 쓰여졌던 것인데 각각 그 기원을 달리하고 있고 뜻도 다르게 쓰여졌다. 이것이 근자(近者)에 와서는 일반적(一般的)으로 동일(同一)한 뜻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다만 상이점(相異點)이라고 하면 길이가 긴 주(呪)는 다라니(陀羅尼)라 하고 중간 길이의 것은 진언(眞言), 아주 짧은 것은 주(呪)라고 하는 구별(區別)이 있을 따름이다. 예시하면「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아미타여래근본다라니(阿彌陀如來根本荼羅尼)」와 같은 다라니는 피 긴 주(呪)이고 제불(諸佛), 보살(菩薩), 명왕(明王) 등의 진언은 길이가 보통이고 주(呪)는 아주 짧은 것인데 ‘흠’ ‘옴’ ‘음치림’ 등을 들 수 있다. 다라니는 산스크리트어의 음역(音譯)으로 그 뜻은 무엇을 보지(保持)한다. 또는 ‘지(持)’ ‘총지(總持)’라고 번역(翻譯)하고 있다.

진언(眞言)은 범어(梵語) 만트라(曼陀羅-MANTRA)인데 밀어(密語), 명(明), 주(呪), 여어(如語), 진실어(眞實語)라고 번역하고 있다. 즉 ‘진실(眞實)한 말씀’ 또는 ‘신성(神聖)한 말씀’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진언은 진실하고 허망(虛妄)이 없는 ‘여래(如來)의 언어(言語)’ ‘불타(佛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언밀교(眞言密敎)라고 하는 것은 ‘불타(佛陀)의 진실(眞實)한 말씀에 의(依)하여 조직(組織)된 종교(宗敎)’ ‘불타의 진실한 말씀에 의하여 건설(建設)된 종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호지국가 인락인민 보성다라니경』, 『제신심명중장 복혜 성 육자다라니경』, 『불공견색신주 삼경』, 『현감경』의 경전 인용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경전을 독송하는 의미를 곱씹어보게 하는 부처님 당시 일화가 있다. 몇몇 수행자들이 숲에서 수행을 시작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나무신들은 그것이 못마땅해 스님들을 내쫓기로 했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 놀래키고 끔찍한 소리와 지독한 악취를 풍겨 괴롭혔다. 수행에 집중할 수 없었던 스님들이 숲에서 나와 다른 수행처를 찾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가 『자비경』을 외우라 했다. 그러자 나무신의 괴롭힘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나무신을 비롯한 숲의 정령들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기쁜 마음으로 스님들을 도왔다고 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라.’ 수행의 밑바탕에는 못 생명을 향한 자비와 축복의 마음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기도야말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주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일념염불과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즉심시불’, 이 네 글자를 일념으로 외우면 큰 공덕이 있다는 법문을 들은 귀 어둡고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즉심시불, 직심시불, 되뇌었지만 얼마 못가 곧 잊어버리고 말았다. 스님이 말씀하신 네 글자가 무엇이던가, 몇날 며칠 고심하다가 어느 날 멧돌에 놓여있는 짚신을 보고는 확신에 차서 ‘짚세기불’을 떠올렸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앞이나 서나 지극한 마음으로 짚세기불을 염해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외우는 것이 무엇이든, 뜻을 얼마나 알고 있든, 중요한 건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만다라와 만트라라는 밀교를 대표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진리의 법계

와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형상과 소리로 구현한 것이다. 다라니, 진언, 주는 모두 진실하고 신성한 부처님 말씀, 모든 지혜와 삼매를 축약하고 호지하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뜻이니,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선법을 지니게 하여 악을 없애고 재난을 막아주는 그 신비한 힘은 스스로의 정성과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밀교행자는 삼밀수행을 기본으로 삼는다. 부처님의 삼밀과 나의 삼밀이 하나 되도록 몸으로 결인을 맺고 입으로 진언을 외우며 마음으로 부처님을 새기고 기억한다. 염은 의도와 행위가 쌓인 것이니 마음부터 바르게 먹어야 한다. 그리고 오계를 지켜 바른 행위를 닦아야 한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유, 불음주는 몸으로 짓는 업을 경계하고 불망어는 입으로 짓는 업을 경계한다. 망어에는 거짓말, 속이고 꾸미는 말, 이간질 하는 말, 거칠고 악한 말 등이 있다.

구업을 조심하라는 부처님 말씀은 차고 넘친다. 사람은 저마다 입 안에 도끼를 지니고 있다 했고, 입은 복과 화가 드나드는 문이라 했다. 말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결과는 천지차이다.

우리가 평소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쓸데 없는 것이 ‘남 얘기’, ‘연예인 얘기’다. 유명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생활과 신변잡기야말로 너무 가볍고 하등 쓸모가 없어 뒷맛이 씁쓸하고 허탈했던 적, 누구나 있을 것이다.

‘뒷담화’ 역시 문제다. 사는 게 힘들고, 참고 지내야 하는 처지에 있을수록, 신세한탄과 하소연으로 견뎌야 하는 팍팍한 현실을 이해하지만 지나치면 불쌍사남다.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리거나 감추기 쉽고 차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안 좋은 습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서는 법담이 아니라면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다. 고요한 사유와 깊은 침묵으로 마음의 샘물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말은 명언이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끝 간 데 없이 내달리며 망상을 피운다. 실오라기 같은 자그마한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온갖 곳으로 흩어지고 부풀어 오르는 번뇌 망상을 잠재우는 데는 염불 염송만한 것이 없다. 그 아름다운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새기면 몸도 마음도 청량해지고 정갈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티베트에서는 태어나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옴마니반메흠’이라고 한다. 그들이 평생 가장 많이 외우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이기도 하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는 것이 마치 향에 물들어 몸에 자연스레 향기가 나는 향광장엄 같다고 했다. 입안을 부처님의 이름과 참된 말씀으로 채우는 이에게 빛과 향기가 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

구업을 참회하는 길,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말로 대신하는 길, 진언 염송만한 것이 없으리라. 아직 수행력이 깊지 못하여 평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나만의 진언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 주신 진실하고 신성한 말씀을 염송하여 불보살님과 진언과 내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 되는 가피와 감응의 순간을 꿈꿔본다.

BBS「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공덕을 베풀되 과보를 바라지 마라

『보왕삼매경론』에 “공덕을 베풀되 과보를 바라지 마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을 베풀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은 쉬울지 몰라도,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무엇을 베풀면 꼭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보답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세상살이의 보편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누구나 알다시피 자비정신을 근본으로 표방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베풀을 원시경전이나 대승경전을 막론하고 강조하고 있으며, 일체 베풀는 행위 자체가 커다란 공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체 모든 종류의 베풀을 보시라고 하는데 이 보시에는 크게 물질을 베풀어주는 재보시, 불법을 가르쳐 주어 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법보시, 삶에 두려움이나 공포에 떨고 있는 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외시가 있습니다.

『열반경』에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대해 자비심을 평등하게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대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같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보시를 행하면서 상대방을 향한 자비와 진정한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아مان심과 남을 도와주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행한다면 진정한 보시가 아닌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선행을 행하고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보를 바라지 않는 마음, 즉 아

무 조건도 바라는 것이 없이 베풀는 것, 마치 하늘의 태양이 모든 만물에게 무량한 빛과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주지만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나, 공기와 물 등 자연이 인간에게 끝없는 혜택을 베풀면서도 그 은혜에 상응한 보수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무진장한 은혜를 베풀면서도 결코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풀 사람도 받는 사람도 베풀 물건에 대한 일체 관념에서 벗어난 보시, 마치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이 하는 보시야말로 참다운 보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주상보시를 바로 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상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무주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상이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도취적이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물든 마음이기 때문에 참다운 이타행인 무주상보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자비행, 참다운 무주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공처럼 바다처럼 비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자비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베풀는 자가 없고 베풀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동체라는 생각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과 법을 베풀어서 나와 중생의 마음 밀바닥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담심을 보리심으로 바꾸어 놓는 일이 바로 참된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주상보시 정신은 동체대비 정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동체대비! 그것은 한 몸의 사랑으로 내가 나에게 주듯이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시이기에 여기에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지, 많은 공덕이 있을 거야’ 이러한 자랑 섞인 보시는 자비보



시가 아닙니다. 아직은 모자람이 있는 보시입니다.

보시가 해탈과 직결된다면 서로 동체라는 인식 아래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라는 상대적인 생각이나 ‘내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베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온전한 해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보시는 평등한 마음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평등한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계 속에 살고 있는 미래에 부처가 될 존재들끼리 기꺼이 나누어 살고자 하는 마음, 만일 이렇게 평등심을 유지하여 보시를 한다면 부처님의 평등성지를 얻어 능히

해탈할 수 있으며 아야말로 참된 보시바라밀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란 상대적인 가치가 향존하는 세상이므로 중생이 응당 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생은 언제나 베풀 만큼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덕을 베풀면 보답을 바라게 되고, 그 베풀덕이 가져다 줄 이익을 계산해 보고, 뻔뻔스럽게도 베풀 것 이상의 이익이나 명예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베풀 것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자체가 거래이지 실제로 베풀 것이 아닙니다.

보시의 근본정신은 우리 중생의 마음에

숨어 있는 탐욕과 인색함을 물리치고 만족할 줄 아는 지족의 마음과 자비의 성품을 길러 덕을 기르는데 그 근본이 있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덕을 회향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회향이란 겨자씨만한 공덕일지라도 그 공덕을 상대에게 돌리는 정신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덕을 짓도록 해준 상대방에게 그 공덕을 돌려거나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공덕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회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자신이 지은 선행을 자랑하거나 교만해지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밀행과 회향하는 마음가짐으로 선행의 공덕을 실천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바른 실천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비밀불교의 의궤’ 제정·공포와 불공법 전수의 시작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32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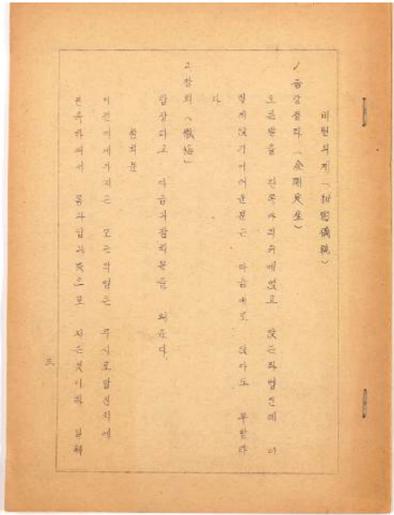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미움도 원망도 없는 대성사의 태도에서 스승들은 그 수행법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음을 굳혀 타협할 수 있었으나 대성사는 올곧은 마음으로 세상의 고난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비는 자연히 가라앉고 사태의 실상을 목격한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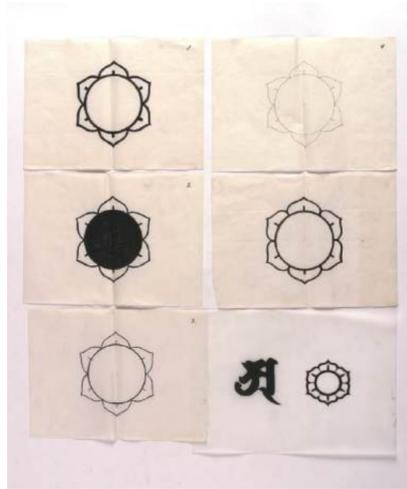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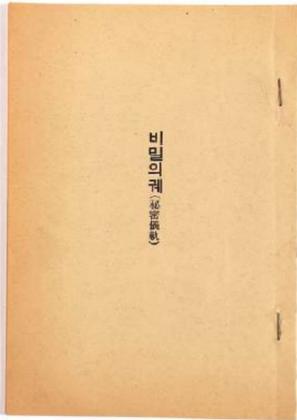
스승들과 교도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대성사는 고요히 때가 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시절 인연이 닳아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심중의 뜻을 다지며 어떤 법을 펼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대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명확한 신앙의 지표와 종교의 체계였다.

상봉동 대성사의 거처가 알려지자 고통을 겪어온 이들이 밀려왔다. 목마른 이가 샘을 찾아오듯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들고 와 대성사에게 길을 물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밀교 수행법 안에서 그 고난을 여윌 방법을 가르치고 불공법을 전하였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불화하고 원한이 가득한 이들이 찾아와 안에 갇힌 고통을 쏟아냈다. 대성사는 그저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바를 가르쳤다. 진언이 필요한 이에게는 진언수행을 가르치고 회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내어 욕심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다.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육자진언과



밀교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은 '비밀의궤' 대성사 유품



대성사 Yukhap-sang Yukpil 스케치

함께 준제진언을 엄하도록 했다. 단박 마음과 주변에 변화가 나타나는 체험이 이어져 대성사가 신통자재하다는 소문이 이어졌으나, 늘 엄격히 경계하여 누구나 삼밀을 성취할 수 있는 밀법의 좋은 수행의 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성사는 밀교수행법을 전수하는 틈틈이 교리체계를 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완전한 밀교의 교리와 의식을 갖추지 못하면 정진해도 공덕이 없고 도리어 마장이 있음을 우려하여 삼밀가지三密加持의 올바른 수행법을 확립하기 위한 경전 탐구와 밀교의궤의 정립에 몰두했다. 여러 경전을 불철주야 탐독하여 발견한 밀교의궤의 역사성과 정당성, 그리고 정진 끝에 몸소 성취한 엄격한 밀교수행법을 체계화했다.

1972년 9월 9일 모여든 스승들을 위해 밀교수행법의 방법과 공덕을 담은 현밀원통성불심요집(顯密圓通成佛心要集)을 근거로 '비밀불교의 의궤'를 제정·공포하고 전수를 시작했다. 참회, 오대사원, 옴남, 옴치림, 옴마니반메흠, 준제진언, 서원사항, 실지정진, 흠자오인, 회향의 순서로 불사법요를 정립했다. 성불로 가는 진정한 방법은 다

밀교 사종수법 통일해 시행 종단 핵심 수행법으로 확립

교의 및 종지 드러내기 위해 Yukhap-sang 등 종단상징물 제정

라니 수행에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닦아야 하는가를 경전에 근거해서 설명한 것이다.

세간 수행법으로서 식재(息災, 재난을 소멸하는 법), 증익(增益, 소원을 성취하는 법), 경애(敬愛, 존경과 사랑을 받고 화합하는 법), 항복(降伏, 일체의 사된 마장을 조복시키는 법)의 사종법(四種修法)을 제시했다. 나라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대비원력으로 새로운 종단의 창종을 준비하면서 대성사는 재난을 없애고 소원을 성취하는 데 부합하는 기도법이 사종수법이라고 확신했다. 진각종에서는 행

하지 않았던 바라 스승들은 사종수법에 깊이 전념했다. 재난을 없애기를 서원할 때는 '제재난 사바하', 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서원할 때는 '소구여의 사바하', 화합과 원만을 서원할 때는 '영일체인경에 사바하'의 준제진언을 지송하도록 했다. 원래 밀교의 사종수법은 각각의 작법과 의궤가 다르지만 원정 대성사는 준제진언으로 통일하여 사종수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세 가지 준제진언은 공식불공, 대중법회, 동참법회뿐 아니라 개인 염송 때에도 행했다. 이로써 '옴마니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과 '나무삿다남 삼막삼따 구치남 단야타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하 부림' 준제진언을 결합 것을 새로운 종단의 핵심 수행법으로 확립했다.

진정한 밀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행의 요체를 직접 설명하였는데, 이런 경전의 전수는 종단이 발전한 후에 정기적인 강공으로 진행되었다. 지금도 여법하게 진행되는 강공은 창종 이전부터 대성사가 세운 총지종의 전통이다. 9월 29일에는 종단의 상징에 대한 가르침을 내렸다.

“총지종 교의의 상징이자 종지를 표시하

는 동시에 교기와 건물, 그리고 각종 마크와 의복의 배지로 사용될 종단의 상징물은 Yukhap-sang이다. Yukhap-sang은 중앙에 둥근 원을 하고 원으로부터 여섯 개의 가시광선이 있다. 그 바깥으로 여섯 개의 연꽃잎을 한 모양을 이룬다.

중앙의 원은 불교의 진리인 동시에 무시무종의 뜻이다. 또 이 우주의 운행도 모두 원으로 운행되므로 법신비로자나가 곧 원이라는 뜻이요. 만다라를 윤원 구족으로 표현하며 대일여래는 곧 태양을 의미하므로 원에서 광명을 발하는 뜻으로 표시한 것이다. 바깥의 여섯 연꽃잎은 불교의 교화를 표시하는 동시에 육자진언, 육바라밀, 육합, 육도, 육근, 육경, 육식, 육관음 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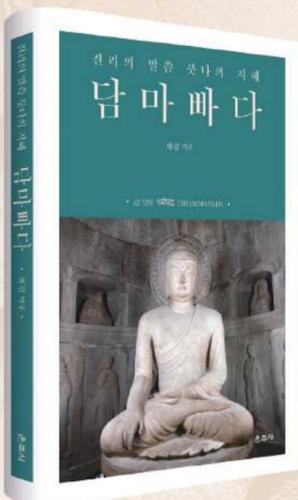
또 육자진언 중 '마니'는 원이요, '반메'는 연화이며, 원은 남성, 연화는 여성에 비유된다. 즉 남녀상교, 음양원융의 뜻이며, 원은 물질과 과학이다. 연화는 심성과 종교이다. 그러므로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물질불이의 뜻을 드러낸다. 원은 현실이며 연화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당상즉도 즉사이진 색심불이 번뇌가 즉 보리인 뜻이다.”

대성사가 내보인 Yukhap-sang에는 새 종단의 교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 본심진언을 본존으로 모신다는 뜻을 형상으로 보인 것이다. 그 자체로 만다라이며 법문이니 종지를 한눈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

Yukhap-sang에서 유래한 또 하나의 상징물이 원상이다. 원상은 태양과 우주, 곧 비로자나불을 나타냄과 동시에 윤원구족한 만다라를 상징한다. 둥글고 평평한 마음의 본성이자 분별과 대립이 없는 원융무애한 진리의 세계를 표현한다. 또한 비로자나불의 법계정인, 아미타불의 선정인 등 밀교의 수인에 도 그대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만한 본성 및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두루 비춘다는 의미의 원상은 후에 종단 사원마다 세워졌다.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담마빠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빨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종조님의 유훈과 자취, 밀법 진리와 수행원력을 온누리에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01. 정통밀교종단의 가치 확립

원정기념관 개관

밀교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척박한 환경에서 홀로 수행과 연구에 매진해 총지의 교리와 사상을 체계화하고 이를 여법하게 구현한 원정 대성사의 자취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차츰 희미해져갔다. 대성사와 함께 종단을 일궈낸 스승과 교도들은 대성사의 사상과 원력, 그리고 위대한 발자취를 기리고 이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원정기념관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2001년부터 전국의 사원과 교도 가정에서 흩어져 있는 대성사의 유품과 유물 및 자료들을 모았다. 통리원과 법장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사원에서는 서류함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창종 초기의 자료들을 분류하고 의미를 추적했다. 교도들은 고이 간직해온 수계증, 법회 설법자료, 사진들을 사원으로 가져왔다. 3년간 진행된 사료 찾기를 통해 대성사의 숨결을 간직한 유품과 기록들을 모을 수 있었다.

대성사의 손때가 묻어 있는 염주, 법의, 안경, 필기구 등에는 근검절약하며 오로지 종단 발전에 힘써온 열정이 그대로 배어있었다. 대성사가 직접 작성한 창종 선언문에서부터 수행의계, 여러 설법안과 육합상 시안 등에는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성격과 교화원력이 여전히 숨을 내뿜고 있었다. 역경작업에 매진하고 종단 체제를 확립하고자 정진했던 과정은 수많은 원고 초안과 유지재단 정관 초안, 한일 불교 한국대표 방일보고서 등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사중수법용 사색 건, 사중수법용 사색 법의, 정진결과보고서, 정진일지, 준제관음상, 양계만다라, 아자와 육합상 등 종단의 초기 수행체계와 의

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친필 자료를 대거 발굴하여 그 취지와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뛰어난 면모가 글자 한 자, 유품 하나하나에 아로새겨 있었다.

대성사의 유훈을 기리는 원정기념관은 총지사 2층에 마련됐다. 내부를 전통양식으로 전면 재정비하고 단집과 불단을 조성했다. 곳곳하면서도 자애로운 대성사의 모습을 재현한 영정을 전면 중앙에 모시고 사리와 유품을 한 자리에 봉안했다. 영정을 모신 제단을 조성하고, 제단 뒤에 대성사의 유품과 창종 당시의 각종 자료사진, 종조님의 유고, 참고문헌을 입체적으로 전시했다. 전시장 중앙에 창종 초창기 때 조성했던 본존과 불단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당시의 불공 모습을 재현했다.

마침내 2004년 12월 2일 원정기념관 개관 불사를 봉행했다. 30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가한 가운데 제9대 효강 종령은 법어를 통해 “오늘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우리 교도들은 원정 대성사께서 뿌리신 정통밀교의 씨앗을 잘 가꾸어 이 땅에 윤원대도의 만다라가 활짝 피어나게 할 것이며,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 번 밀교종흥의 기치를 드높이는 것이 대성사님의 잠원 유훈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승직자는 창종 초기의 열화와 같은 교화정신을 살리고 교도들은 초발심의 정진력으로 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배하는 것만으로도 대성사의 유훈과 자취를 생생하게 느끼고 마음 깊이 담을 수 있는 원정기념관은 대성사의 밀법 진리와 수



1. 종조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원력, 그리고 위대한 발자취를 기리고 이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대성사의 숨결을 간직한 유품과 기록들을 모아 2004년 12월 2일 총지사 2층에 원정기념관을 개관했다.
2. 총기 50년, 2021년 1월 19일 원정 대성사 제114주년 탄신대재를 맞이하여 스승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본산 원정기념관에서 종조님의 새 진영을 봉안했다.
3. 원정대성사(苑淨大聖師) 진영(眞影)



행 원력을 향유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여 이후 각종 행사와 수행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원정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2005년부터 원정 대성사의 탄신일을 정식 경축일로 정하고 ‘종조탄신대제’를 봉행했다. 매년 1월 29일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추선불사를 올림으로써 창종조인 대성사의 이념과 실천을 계승하고 총지종의 정통성을 전승하고자 마음을 모았다. 대성사를 잊지 않고 마음으로 다시 새김으로써 범신불의 가지력과 종조

의 구도 원력을 온누리에 채울 수 있었다. 종조탄신 100주년을 맞아 2007년 1월 29일 총지사에서 원정 종조 탄신 10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사원의 스승과 교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10대 효강 종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종단은 그 뛰어난 종지와 송고한 창종 이념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화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종조탄신 100주년을 계기로 우리는 종조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한번 밀교종흥의 기치를 드높여야 하며 이것이 원정 대성사의 유훈을 참되게 기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해 12월 24일에는 각 서원당에서 창교절 행사를 진행하고 창종 35주년을 맞아 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교화방편을 과감히 채택하여 제2의 창종 정신으로 도약할 것을 천명했다.

총지사 교도 광고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연세숲내과

Yonsei Forest Clinic

원장 김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Tel. 02-496-0779 Fax. 02-496-0778

원정대성사 밀교사관 계승과 과제 <1>



이원진리와 자주정신을 새기다

6월 13일 부산 정각사에 개최된 2024년 한국밀교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한 발표를 맡았다.

대회의 대주제는 원정대성사의 사상과 밀교였지만 원정대성사 주제의 논문은 필자의 논문 한 편에 그쳤다. 발표논문의 제목은 「원정대성사 밀교사관의 계승과 과제」였는데 발표는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다. 원정대성사의 생전 행장에 대한 기록과 평가가 다른 점이 있어서 다음 연구로 미뤄두기로 했다. 구상해 두었던 마무리 화제를 마음속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논평자의 질문에 미처 답을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나름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요약하면 첫째, 이원진리(二元眞理)에 대해 인도 불교의 밀교형성에 기여한 대승불교 사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헌으로 보면 오학처(五學處)를 구성하는 계율, 구사, 반야, 중관, 논리학이다. 다섯 과목의 내용은 동아시아 불교의 영향을 받은 중국 불교 사상으로 풀이하는 것보다 쉽다. 중국의 그것은 화엄이나 천태, 삼론의 철학으로 선과 뒤엎겨 매우 난해하기 때문이다. 자주 언급한 말이지만 모두가 중국의 한자와 이로부터 파생된 문헌이나 사유방식에 기인한다. 한글과 우리말은 불교어로서 한자와 한문보다 우수하지만, 이를 불교어로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불사가 될 것이다. 이런 논리의 배경은 원정대성사의 사상이 인도, 동아시아, 한반도를 관통하는 폭넓은 포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에서 보이듯 많은 제존들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수행자는 근기에 따라 지혜존으로서 문수보살, 자비존으로서 관세음보살, 보현행원의 보현보살, 약취중생 구제의 지장보살이 자신의 본존이 될 수 있다. 종기밀교에서 나아가면 후기밀교시대 많은 경계들이 결연관정과 다양한 본존을 중심으로 시설된 것을 볼 수 있다.

결원관정은 요약하면 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며, 다양한 중생의 능력과 소질을 고려한 의식 개발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 목표는 성불에 이르러야 하지만 궁극에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종교적 실지(悉地)를 위해 결연관정이 필요하다. 티벳불교의 링린포체 전기를 보면 아사리가 티벳에 있을 때 많은 스승으로부터 관정을 받은 기록을 빼곡이 전하고 있으며, 절친인 티장린포체와 함께 서로 다른 본존의 관정을 전범아사리와 전수제자의 입장을 바꾸어 시찰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 밀교의 꽃은 본존수행과 결연관정이다. 그 열매는 본존을 성취하고 공덕을 중생과 공유하는 것이다.

최치원의 『고운집(孤雲集)』에 보면 <지증화상비명>이 있는데 지증화상 도헌(道憲, 824~882)에 대한 찬과 더불어 밀교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다. 인용하면, “현교는 겉으로 드러내고[明示] 밀교는 비밀히 전하는[秘傳] 바, 아짐에는 범부였어도 저녁에는 성인이 되게 함에 불교의 가르침이 원래 변한 것은 없지만 돈오(頓悟)의 선풍이 발연히 흥기하였다. 그 중취를 시험 삼아 옛보아 비교해 보건대, 닦되 닦을 것이 없는 것을 닦고, 증득하되 증득할 것이 없는 것을 증득하였다. 고요히 있을 때에는 산처럼 서 있고 움직일 때에는 골짜기처럼 응하였으며, 무위(無爲)의 유익함은 다투지 않고 도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였다.

현밀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무수한 근기를 위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다. 오도에 이르는 것은 현교이고, 삼신을 증득하고 실지를 성취하는 것은 밀교이다. 선의 견성(見性)은 범신을 증득하기 위해 아짐, 범집의 탈을 벗는 계기를 얻은 것이라 말하고 싶다. 오도(悟道)라고 할 때 비로소 삼신을 성취해 제불의 방편을 증득하는 인연이 비롯된다고 상상해 본다. 고운이 도헌에 대해, “고요히 있을 때에는 산처럼 서 있고 움직일 때에는 골짜기처럼 응한다”라고 하였는데 옛 선사들의 온전한 면목이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원정대성사는 『종조법설집』에서, “밀교 가운데에는 가장 저급한 욕망과 가장 숭고한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가장 범속한 것에 가장 숭고한 진리가 담겨 있지 않으면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다. 부다는 중생의 온처계(溫處界)가 곧 범이라 했다. 작금의 선(禪)을 지키는 것만 능사로 여기고, 지키고 떨쳐버리는 분별이 있으면 아마 주인공은 이승(二乘)의 해탈을 넘지 못했으리라 생각해본다.

2024 한국밀교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전 티벳대장경영역원 정성준 박사가 (원정 대성사 밀교사관의 계승과 과제)의 주제로 불교총지종 종조에 관한 논문을 학계 최초로 발표해 귀추가 주목됐다. 또 이 논문은 그 가치와 학술적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밀교학회 학회지에 등재되기로 결정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논문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활동을 고려할 때 그 연구가 다소 늦은 점이 있다.

본 논문은 불교총지종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밀교의 중흥조이자 창종주인 원정대성사(元淨大聖師)의 밀교사관과 교관사상의 일부를 살펴본 것이다. 대성사는 1972년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였으며 대한불교 진각종(眞覺宗)의 회당대종사와 함께 현대 한국 밀교를 이끌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자료를 중심으로 어록과 소의경전에 나타난 대성사의 밀교사관과 교관사상의 일부를 살펴보고 문제가 될 가능한 연구 주제를 제기하려 노력하였다.

불교사에 자취를 남긴 한 인물의 연구는 충분한 자취의 수집이 절실하다. 학문적 견지에서 아주 사소한 자료라도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성사의 행장은 회당대종사와 진각종에서의 활동을 공유하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는 더 식견 있는 학자들의 소임이 될 것이다. 한 종단과 인물 연구는 역사와 종지, 소의경전과 사상, 수행과 의식 등 많은 연구 주제가 가능하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종단 차원의 기획에 의한 전문 연구집의 발간으로 가능할 것이다.

정성준, 전 티벳대장경영역원

- I. 서언
- II. 행장과 창종 이념
 - 1. 행장의 요약과 활동기 구분
 - 2. 창종 배경과 이념
- III. 밀교사관과 교관사상
 - 1. 소의경전과 교관사상
 - 2. 역사관과 존재이념
- IV. 원정사상의 계승과 과제
 - 1. 밀교사관의 계승과 발전
 - 2. 자주정신과 의궤 전승
- V. 결어

I. 서언

한국불교사를 통해 볼 때 밀교는 일찍이 한국 불교문화의 한축을 형성할 만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밀교는 화엄·천태·선·정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였으며,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의 음악과 가사, 건축, 미술, 의식, 민속 등 전반에도 영향을 끼쳤다. 한국 밀교는 고려시대 신인종(神印宗)과 지념업(持念業)의 종단을 형성하였으며 조선초 태종의 종단 통폐합 조치 이후 사라졌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많은 밀교 전적이 간행되었고 적지 않은 밀교도량이 개설되었으며 범패와 실담에 능했던 승려들이 있었다.

1810년 총지사(總持寺)¹⁾를 마지막으로 밀교를 유지한 흔적은 사라졌지만 용성(龍城)의 육자진언과 성철(性徹)의 아비라기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찰의식은 밀교에서 온 것이며, 한국전쟁 후 참회원(懺悔院)을 시작으로 진각종(眞覺宗)과 총지종(總持宗)의 양대 종단이 형성되었다.

한국불교학계는 신라·고려·조선조의 종단이나 종파 연구뿐만 아니라 현대교종단의 종지와 현황 연구도 볼 수 있지만 불교총지종(이하 총지종)의 경우 종단의 규모와

1)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승달산(僧達山)에 있었던 남북국시대 금지국의 승려 정명이 창건한 사찰. 신라 성덕왕 때 서역 금지국(金地國)에서 온 정명(淨明)이 승달산의 지맥인 백운산(白雲山)에 창건하였으며, 신라 말에는 혜통(惠通)이 이곳에서 수도하였다. 1016년(현종 7) 화재로 인하여 절이 소실되자 백운산 밑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창하였는데, 사찰의 정교형은 호남지방에서 으뜸이었다고 한다. 당시 총지마을일대는 모두가 총지사의 사역으로서 승려의 수가 800명, 암자는 9개소, 승방은 200동이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이 절은 1810년(순조 10)을 전후하여 폐찰이 되었다. 당시에 충청도 석성현감을 지낸 임면수(林勉洙)는 총지사 뒤에 아버지의 묘를 썼는데, 승려들이 이에 반대하여 묘에 참나무 말뚝을 박아버렸다. 임면수는 즉시 사찰의 절거를 명하였으나 승려들이 이에 불응하자 절에 불을 질러 폐사로 만들었는데, 승려들의 일부는 분신(焚身)하고 일부는 법천사(法泉寺)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당시까지 이 절은 장성 이남에서 출가하는 사람들의 도승지(度僧地)였다고 하며, 많은 도승(道僧)들이 배출되었다. [총지사(總持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7152(Endnotes)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5월 21일 ~ 6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광사	우인	5/21	10,000	동해사	법선	5/21	10,000	수인사	삼사순례단	6/18	200,000	제석사	김옥희	6/5	10,000
	보명심	6/20	10,000		김진화	6/3	10,000		법상	6/20	20,000		안선민	6/5	10,000
국광사	지명	5/23	10,000		송인근	6/20	10,000	시법사	이순영	6/8	20,000	초록어린이집	손한샘	6/5	10,000
	지명	6/2	10,000		이중구	6/11	7,000		해광	6/8	10,000		유지영	6/3	80,000
기로스승	공덕성	5/21	20,000	만보사	강명순	6/12	30,000	실보사	이순옥	6/5	20,000	총지사	무명씨	6/3	50,000
	수증원	5/21	10,000		김정희	6/18	10,000		박성호	6/5	20,000		유은혁	6/5	10,000
	밀공정	5/21	10,000		홍도열	6/19	10,000	실지사	황성녀	5/29	10,000		김정환	6/10	10,000
	선도원	5/21	10,000	밀인사	정정희	5/30	5,000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5/24	80,000		백귀임	6/10	10,000
	법지원	5/21	10,000		박길선	6/10	1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5/27	80,000	최영아	6/10	10,000	
	일성혜	5/21	10,000	밀행사	역광	6/10	20,000	양지제1복지관	서영주	5/27	10,000	신현태	6/10	10,000	
	사홍화	5/21	10,000		행원심	6/15	10,000	일원어린이집	박송희	6/3	20,000	통리원	남혜	5/21	10,000
	안주화	5/21	10,000	법천사	이은별	6/15	10,000		연명구	5/24	20,000	해정사	조성기	5/21	100,000
	진일심	5/21	10,000		반야심	5/31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5/27	80,000		안재석	6/5	10,000
	시각화	5/21	10,000	법황사	인선	5/21	10,000	자석사	도우	6/10	10,000	신선미	6/5	10,000	
최상관	5/21	10,000		정계월	5/21	10,000		지현	6/10	10,000	강동화	5/31	10,000		
연등원	5/21	10,000	벽룡사	박미경	5/27	1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5/27	80,000	박대명	6/3	10,000		
자선화	5/21	10,000		승원	5/21	10,000	정각사	이정남	5/23	10,000	박대성	6/3	10,000		
승효제	5/21	10,000	벗고을어린이집	묘원화	5/21	10,000			노점호	6/12	10,000	무명씨	6/4	10,000	
주신제	5/21	10,000	사원명무기명	이민선	6/4	80,000			탁상달	6/13	10,000	박옥자	6/9	10,000	
총지화	5/21	10,000	삼밀사	하명순	5/27	10,000			이정남	6/18	10,000	송영근	6/11	10,000	
해정	5/28	10,000	석관실버복지센터	박필남	6/15	10,000		안한수	6/6	10,000	송호영	6/11	10,000		
법계월	6/3	50,000		묘홍	6/15	10,000	제석사	안용준	6/5	10,000	송하나	6/11	10,000		
단음사	정석만	5/26	10,000		나석원	5/24	50,000					곽방은	6/10	80,000	
	진여	5/27	10,000		박현정	5/25	20,000					*포항 대련리 후원금			
덕화사	법상인	6/20	20,000									관광사	우인	6/24	100,000

탄생의 땅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라까지

글로 보는 불교의 8대 성지

불교의 4대 성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네 곳의 성지를 일컫는다.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 동산,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 성도한 뒤 최초로 설법을 시작한 사르나트(녹야원), 입멸한 쿠시나가라 등 불교 성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네 곳을 말한다. 이 네 곳을 '4대 성지'라고 한다. 이들 네 곳의 성지는 각각 붓다의 탄생·성도·전법·해탈을 상징하며 불자들의 영원한 고향으로 추앙받고 있다.

이곳에 네 곳이 추가되어 8대 성지로 불리게 된다. △불교가 뿌리를 내린 포교의 땅, 라즈기르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물렀고, 가장 많은 경이 설해진 땅, 슈라바스티 △도리천에서 논쟁을 설한 후 내려온 땅, 상카샤 △최초로 비구니 승가가 생겼고 마지막 안거를 하셨으며 제2차 결집이 이루어진 땅, 바이살리이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룸비니는 네팔 남부 타라이 지방 최대의 도시인 바이라와 서쪽 약 18km 되는 지점, 즉 티나우강 등 몇 개의 작은 강들을 가로질러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유적의 중앙에는 흰색으로 단장된 아담한 '마야부인당'이 있다. 사당 내부에는 표면의 침식으로 표정조차 확실치 않은 마야부인이 종자와 함께 나무 밑에 서 있는 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이 상을 손으로 만지면서 예배하고 있다. 보통 '마야데비 템플'로 불리는 사당의 남쪽에는 석존의 탄생시에 마야부인이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네모난 연못이 있어서, 옆에 선 큰 나무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승원터가 묻혀있다.

아쇼카왕이 건립한 석주는 마야부인당 서쪽에 있는데 현재의 높이는 약 7.2m이다. 석주의 일부에는 나뉘어 흔적과 균열이 있지만, 표면에는 마우리아시대의 독특한 기법으로 갈고 닦은 광택이 그대로 남아있다. 기단으로부터 약 3.3m 되는 위치에 아쇼카왕의 비문이 보인다. 마야부인당 주변에는 벽돌로 만든 크고 작은 봉헌 스투파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다. 일체 존재의 이치를 깨닫다 성도지(成道地) 『붓다가야』 부다가야는 비하르주의 가야시 남쪽 약 10m 되는 지점, 즉 동경 85도의 자오선상에 있다. 가야시에서 오른쪽으로 가야쉬르샤언덕과 왼쪽으로 화르구강을 사이에 두고 전정각산을 바라다보는 평탄한 길을 가다 보면, 보드가야 대탑의 끝머리가 푸른 나무숲 사이로 멀리 보인다.

이곳은 일찍부터 석존의 성도와 관련하여 '삼보디', '마하보디' 등으로 불려왔다. 또 13세기에 이곳을 찾아 온 티베트의 승려 다르마스바민처럼 '금강보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화르구강의 지류인 나이란자나강의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석존 성도의 성지가 있다. 이 일대는 예전에는 모래에 묻혀있었다고 한다. 계단을 내려가면 정비된 유적이 펼쳐지고 중앙에 대탑, 서쪽에 금강보좌와 보리수가 서로 인접해 있는 것이 보인다. 그것들을 에워싸듯이 돌로 만든 난간 기둥들이 쪽 둘러져 있으며, 또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갖가지 스투파가 봉납되어 있다. 대탑 북쪽에는 석존이 성도 직후의 7일 동안, 스스로 깨달은 진리를 즐기면서 산책을 했다고 하는 전설의 장소가 있다. 그곳에는 높이와 폭이 각각 1m 정도 되는, 콘크리트로 덮인 돌축대가 18m에 걸쳐 이어져 있고, 석존이 한걸음 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피어났다고 하는 열여덟 개의 연꽃이 상징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다 '초전법륜지(初傳法輪地)' 『바라나시의 사르나트』 녹야원은 현재 사르나트라고 불리며 바라나시 북동쪽 약 7km 되는 지점에 있다. 바라나시에서 사르나트에 이르는 지역 일대는 평탄하고 거의 기복이 없는 인도 평야가 이어진다. 영불탑쪽에서 조망해보면 수림의 머리 너머로 원형의 돔 형식으로 세워진 다메크 스투파와 모가난 첨탑을 가진 현재의 무리가다바쿠티의 두 건축물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메크 스투파의 표면은 직선적인 기하학적 무늬나 새, 인물상 등이 꽃무늬 속에 배치되어 있어서 디자인이 매우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되어었는데, 이 장식 부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전혀 시대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현장은 녹야원의 장대함을 기록하고 있다. 그 옛날 번영을 누렸던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현장은 석존이 미륵보살에 수기를 준 흔적의 윗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현재의 마메크 스투파인 것으로 추측된다.

영원한 해탈, 열반에 드시다 '열반지(涅槃地)' 『쿠시나가라』 쿠시나가라의 유적은 고라크푸르의 동쪽 전원 안에 남아있는 사라수의 원시림을 빠져나가 50km 남짓되는 카시아마을에 흩어져 있다. 5세기 초에 하리바라라는 신자가 기증한 전장 6m가 넘는 거대한 열반상을 모시는 열반당이 있다. 열반당의 약 1.5킬로미터 되는 지점에는 석존을 다비에 붙인 마쿠타 반다나 터로 추정되는 라마바르총이 있다. 이 스투파를 둘러 흐르고 있는 작은 시내가 바로 석존이 최후에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히라나바티강이라고 한다. 또 파바에서 쿠시나가라로 향하면서 병고에 시달린 석존이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마침 5백 명의 대상들이 건너간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카룻타강으로 추정되는 작은 시내가 그 더욱 동쪽 약 4km 지점을 흐르고 있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해	탈	절		마	망	원	경
안			경	동	시	장	비
선	가	귀	감		멜	밤	마
	장			금	로		호
효	자	손		부		을	가
	리			도	유		니
이		세		사	도	세	자
목	련	존	자		차		여
구			전	문	가		아
비		거		사	발		루
							비



신종여시(慎終如始)의 자세로 사는 삶

웃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고 집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하듯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시작부터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되면 다시 되돌려 바로 잡는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수정하는 것이 경비도 더 많이 들고 힘도 더 들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처음 마음을 낼 때 바른 깨침을 얻는다(初發心時 便成正覺 초발심시 변성정각)'고 했고, 시경(詩經)에서는 '처음이 있지 않은 것은 없지만 능히 끝이 있는 것이 적다(靡不有初 鮮克有終 마불유초 선극유종)'라고 했다.

이 말 모두가 초지일관(初志一貫)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시작할 때 가진 그 신선하고 거대한 포부와 수련은 바로 자기 하기 나름 아닐까?

게으름도 자기 탓이고 부지런함도 자기 몫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내실(內實)을 다지기에 힘을 쏟는다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정말 긍정적인 삶이 도래할 것이라 확신한다.

끝을 삼가기를 늘 처음과 같이 하라(慎終如始)라고 했듯이 거대한 아름다리 나무도 털끝 같은 싹에서 생겨나고 아홉 층의 드높은 누각도 한 줌의 쌓인 흙에서 일어나며 천리의 걸음도 발 아래에서 시작한다(合抱之木(합포지목), 生於毫末(생어호말), 九層之臺(구층지대), 起於累土(기어누토), 千里之行(천리지행), 始於足下(시어족하) (老子, 『道德經』)고 했다.

우리는 어려움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뿌리를 공고히 해야 한다. 털끝 같은 싹, 한 줌의 쌓인 흙, 발걸음 한 발짝부터 우리는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노자는 '도덕경(道德經)' 64장에서 말한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늘 다 이루어질 듯하다가 꼭 패한다. 끝을 삼가기를 늘

처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민지종사는 상어기성이패지), 慎終如始 則無敗事(신종여시 즉무패사)라고 했다.

사람들은 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새해가 시작되면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금연(禁煙)도 꼭 실천하고, 운동(運動)도 부지런히 해서 건강을 잘 지키겠다는 아무진 결심이나,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좋은 성과(成果)를 만들어 보겠다는 굳은 의지 등등. 이 모두 정말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직분(職分)을 맡았을 때 누구나 처음은 성심껏 그 일을 처리하지만, 지위가 높아질수록 게으름을 피우기 일쑤다.

또 질병(疾病)도 마찬가지다. 초기엔 열성(熱誠)으로 몸조심하다가 나을 듯싶으면 방심(放心)하게 된다.

모든 사고는 미리 예방하지 않는 게으름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람들은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惡德) 중의 하나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실수의 싹이 돋는다.

다가오는 올 하반기에는 초발심(初發心)의 성정각(成正覺)으로 나타나기를 기원(祈願)해 보자. 우리는 시작할 때는 거대한 큰 뜻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으로 정진(精進)하려는 노력 또한 무척 의욕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욕만 앞설 뿐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이 있고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도 있음을 늘 경계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무더운 혹서기(酷暑期)에 모든 불자들에게 모두 모두 건강한 삶이 되길 부처님 전에 빌어 본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불교총지종과 함께 떠나는

인도·네팔 8대 성지순례



순례기간

2024년 11월 21일(목) - 30일(토) 8박10일

순례지역

인도·네팔

룸비니·보드가야·사르나트·라즈기르·바이살리·슈라바스티·산카시아·쿠쉬나가라 아그라 타지마할 포함

순례비 : 2,990,000원 (변동환율 적용, 추가금액 발생 가능)

동참시 계약금 300,000원

부산은행 023-13-001361-0 포커스투어

여권사본스캔+사진스캔본 제출 비자신청용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모집대상 : 승직자, 교도

신청기간 : 2024년 7월 10일(수)까지

기타문의 : 불교총지종 인솔자 남혜정사 010-9828-4083

포커스투어 010-9763-0700



총지로 여는 삶 ①

고등학교 시절에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글을 참 가슴설레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이 세상 무엇도 인연 아님이 없어 보입니다. 총지종과의 만남 또한 인연이라는 말 아니고는 달리 어떻게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

불법을 처음 만난 건 30년쯤 전입니다. 당시 막 출간된 석용산 스님의 수필집, <여보게 저승 갈 때 무얼 가지고 가나>를 읽고 삶의 의미와 할 일을 되짚어 보던 차, 동네 포교당에서 작가와의 만남 법회가 열린다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직접 참석했던 기억은 희미하고, 어떻게 그 인연으로 포교당을 몇 번 나가보게 되고, 신도회장님의 소개로 용한(?),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선방 스님(참선 수행을 주로 하는 스좌)을 만나 뵙고, 금강경 4구계와 참선 수행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이 참선 수행이지 잘못된 수행으로 내내 앉아서 즐기만 했는데, 그렇게 7~8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노력은 쉽고 편하게, 성과는 크게, 기초도 안 갖췄으면서 품은 잡고 싶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얼굴은 검어지고, 기운은 약해지고, 정신은 멍해지고, 허리는 병이 나서 사람들이 저를 마치 뱀을 보듯 꺼리게 되었습니다.

의지는 좀 강해져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오로지 속세를 벗어날 뜻만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인연

이상주 교도 (자유기고가)

이름은 진각종만 알았고, 교리와 수행법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불자라기에 무식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총지종 자성일 법회와 다양한 행사에 나오기 시작했으며, 원정 대성사님의 『종조법설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교는 현실도피적이고 밀교는 현실 이익과 실천을 중시하며, 현교는 장시간(3겁)의 수행을 통하지만 밀교는 즉신성불을 한다. 또 지금은 밀교의 시대로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통한 현세정화가 중요하다. 현교 보다 밀교가 더욱 쉽고 빠른 방법이다. 가장 후대에 가장 집약된 불교 수행법이 밀교”라는 말씀은 짧지만 그동안 이리저리 시행착오를 겪어온 저의 경험과 잘 닿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종조님께서 밀교 종단을 이미 창종하시어 인연을 따라 보내시고, 종도들의 새로운 요청에 응하시어 총지종을 창종하셨다는 설화를 듣고는, 이러한 종단에 인연이 닿음에 참으로 다행스럽고도 환희로우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뿌리에서 시작하여 만갈래 꽃으로 피어나는 불교의 흥왕과 밀교 총지종의 찬란한 번성을 기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그동안 연재해온 ‘불교로 여는 삶’을 끝내고 제호를 바꾸어 ‘총지로 여는 삶’을 격 월간 게재합니다. 필자는 총지종 이상주 교도로 인문학 방면의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입니다.

편집자 주

“

봉암사에서 스님 만나
육자진언 수행 접해

종조설법집 읽으며
밀교교리·수행 배워

”

어느 해 여름 문경 봉암사로 대종공양을 갔는데, 옆방에서 변소 지기를 하던 스님한테 ‘수행을 잘못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 사람을 따를지 저 사람을 따를지, 판단이 명료히 서지 않아서, 그 스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듣고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다 한 주 뒤에 다시 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첫째는 줄음은 수행이 아니니 앉지 말고 걷는 수행을 하라(행선). 둘째는 집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손가락을 세며 감독하라(수식관).

세째는 ‘옴마니반메훔’을 노래하듯 외워라(주력수행).

그렇게 잠을 깨고, 의식을 집중하고, 옴마니반메훔을 외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불교총지종을 아느냐고,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한다는데, 그렇게 밀교 총지종을 만났습니다. 밀교라

남해 정사의



변화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관한 존재론에 대해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크게 나뉜다. 창조론은 기독교의 신화, 신앙을 바탕으로 인간, 생명, 지구, 우주 등 만물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신학 사상이며, 진화론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중생은 다양성과 적응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 간다는 사상이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하였을 때 사회에 던진 충격은 엄청났다. 다윈은 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동물들의 여러 변종이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라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윈의 주장은 기독교의 창조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약 6천여 년 전 확정된 수의 생물이 순간적으로 신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종교적 믿음은 다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다윈의 주장은 ‘성경 말씀’을 거짓이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성직자들은 이와는 달리 다윈의 진화론까지 포용하며 신의 창조설을 확대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신의 창조가 있었고, 진화의 과정도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론의 받아들임은 사회적 진화론자들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과 개인주의, 인종차별,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민족주의, 군국주의의 병폐를 낳기도 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할까?

불교에서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 우주가 수평적 공간의 삼천대천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수직적 공간의 육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와 지옥, 아귀, 수라, 축생, 인간, 천상의 육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시간적 개념으로의 ‘겁’이 있다.

불교의 인식론에서는 이 세계를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 내 육처와 인식대상인 ‘색,성,향미,촉,법’ 외 육처를 합한 십이입처로 설명한다. 즉 불교의 인식론에서 이 세계는 내 안의 소우주와 내 밖의 대우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존재론을 아우르는 불교적 진리가 있다. 그것은 연기와 무상으로 대표되는 변화론이다. 불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연기에 의해 일정한 조건에 의해 변화해 가는 현상만 있을 뿐이다.

변화는 우주적 이치이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수행과 자기개발로 성장할 수 있고, 기업은 새로운 생산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종교, 특히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2,500년이 넘는 찬란한 불교문화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것이 불교적 진리이고, 우주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보현 전수의 총지스케치



신교도 환영 발원문

총지사 최영화 교도가 비로자나부처님과 제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으로 슬기로운 불자가 되어 온 가족이 밝고 행복한 생활이 되게 하시고, 원하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발원하나이다. 옴마니반메훔

화음사 교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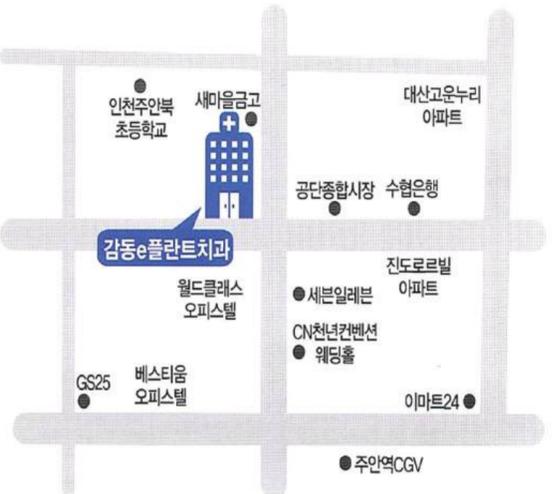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제16회 생명나눔 백일장 시부문 대상 영예

종립 동해중 3학년 김준호 군 '삶의 받침대'

삶의 받침대

김준호

매일 모진 말을 들어서 다리가 아파옵니다. .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앓을 의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낡은 의자가 보입니다. 하는 수 없이 앉아봅니다.

모진 말들을 옆에 놔두고 의자에 앉아봅니다.
다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모진 말들은 사라져있습니다.

일어서서 의자를 다시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의자입니다.

아~ 어릴적에 앓고 기대었던
따뜻한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종립 동해중학교 김준호(3학년) 군이 제16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에서 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심산 스님)와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백명숙)가 공동 주최한 백일장은 5월 25일 서면 영광도서 9층 문화홀에서 실시됐으며, 지난달 2일 같은 곳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김준호 군은 총 200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이 참여한 이번 백일장에서 '삶의 받침대'라는 제목으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일장은 '삶'을 공동 주제로 하였으며, 중등부는 '선물', '노래'의 주제가가 제시됐다.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㉓					㉒		㉑
			③㉒				
⑤	㉒					④	㉒
				⑥㉑			
⑧						⑦	
			⑨		㉑		
㉑	㉑		⑩				㉑
⑪		㉑					⑫
			⑬		㉑		
					⑭		⑮

가로 열쇠

- 양력 7월 15일, 총지중의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우란분절)
- 먼 곳의 물체를 확대하여 똑똑하게 보이도록 만든 광학 기계
-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약재상이 모여 있는 곳, 서울의 동쪽에 있는 00시장
- 밤에 집 근처 가까운 곳에 놀러 가는 일, 밤산책
- 조선 중기, 서산 대사 휴정 스님이 지은 불교의 개론서
- 금으로 장식하여 만든 향로
- 줄로 만든 돛, 울무의 다른 말
- 대나무의 끝을 손가락처럼 구부려 손이 안 닿는 부위를 굽을 수 있도록 만든 물건
- 두 사람이 맨손으로 서로 맞잡고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조르거나 눌러 승부를 겨루는 운동
- 조선 제21대 영조의 둘째 아들, 골육상잔의 비극적 사건
- 백중날 아귀도에 떨어진 모친을 구제한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명
- 전라남도의 남동쪽에 있는 밤바다가 유명한 도시
- 특정 분야 일을 줄곧 해 와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 홍보석이라 불리는 7월의 탄생석

세로 열쇠

- 바다와 육지가 서로 닿아서 길게 뻗은 선
- 젤라틴, 계란 흰자, 설탕, 향료, 식용 색소 따위를 섞어 거품이 일게 한 다음 굳힌 양과자
- 경비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곳
- 어떤 사물의 바깥쪽 경계에 가까운 부분
-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 엔틱가구에 많이 사용되는 짙은 적갈색을 띠는 원목
- 귀, 눈, 입, 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석가모니부처님을 높여 이르는 말
- 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로, 간지를 따라서 정한 해로 말하면...
- 두 다리로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림으로써 움직이게 하는 탈 것
- 승직자 임는 법의, 00와 장삼
-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논밭에 세워 두는 조형물
- 조선 시대, 의금부에 속한 벼슬아치
-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
- '움 머리에 뺨 꼬리' 시작은 크지만 흐지부지 끝남을 꼬집는 말
큰 언덕처럼 보인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서해안에서 제일 큰 섬
-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담아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
- 연극, 음악, 방송 등 실제 공연 전에 하는 연습

텃밭 안에서 '몸도 마음도 쑥쑥!'

석관실버센터, 어르신과 어린이 함께 프로그램



사회복지법인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가 지난달 19일,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협약이 체결

된 하은어린이집, 래미안숲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몸도 마음도 쑥쑥!'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몸도 마음도 쑥쑥!' 텃밭 프로그램은 석관지니어스봉사단 내 세대

공감지니어스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텃밭을 가꾸고 지역 내 원아들과 함께 농산물을 수확하는 세대통합의 과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하은어린이

집, 래미안숲어린이집에서 24명 원아들이 참여해, 텃밭에 물주기와 방울토마토 수확을 했다. 어르신들은 작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아들이 각자 준비해 온 물조리개를 이용해 작물에 직접 물을 주는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또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바로 시식하며 정답을 나눴다.

세대공감지니어스봉사단 어르신들은 "귀여운 아이들을 보니 생각이 넘친다"며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나석원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전수하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아이들에게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과 텃밭 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진정한 세대공감을 실천한 것 같아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상호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세대공감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참문의=02-957-9923

불교총지중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중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예』의한 진언 '움종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함곡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백길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충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견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일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2박3일

제8회 청소년 바른인성 프로그램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한 마음 캠 포

2024. 07. 23 - 25

용인에버랜드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대상 불교총지중 교도자녀,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학생 내용 인성강의, 문화체험
개별 참가문의 각사원 주교 및 행사접수처로 문의 ☎ 02-552-1080~3